선물가액 상향이 부른 명절 대세 픽… '농수축산물·프리미엄'

한우 등 신선식품 전년比 판매↑
언택트 명절 예상 귀성여비↓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상품 각광

롯데백화점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정부의 명절 선물세트가액 상향 조치 영향으로 우리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급등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현상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고 농수축산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설판매 동향을 보면 20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경우 전년대비해 축산정육세트는 34%, 굴비세트 55% 매출이 증가했다. 20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중에서는 한우알뜰세트1호(19만8000원), 법성포 참굴비세트 1호(18만9000원) 등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본격적으로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명절선물세트 판매 추이를 전년 설과 비교해 보면 굴비 115%, 선어 103%, 정육 76%, 청과 94% 등 우리 농축수산물 판매가 급등했다. 반면, 가공상품의 판매량은 생필품 44%, 주류 42%, 한과 37%, 건강(홍삼)상품 20% 등 상대적으로 낮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 판매행사를 전국 31개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구매는 롯데온과 모바일 롯데백화점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1100여종의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도 올해 설 선물세트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매출이 지난해 설과 비교해 109.9%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 대비 175.8% 증가했다. 가공식품 매출 신장률(66.8%)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품군별로 보면, 한우 매출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 145.4% 증가했으며 굴비와 과일 매출도 각각 166.3%와 257.8%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설 선물세트 판매기간 한우·굴비·건강식품·와인 등 인기 선물세트 100여 종을 5~30% 할인해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도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와 SSG(쓱)닷컴이 올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28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설 사전예약 기간(2019년 12월 5일~2020년 1월 9일) 대비 이마트는 53%, SSG닷컴은 97.1%가량 세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상 가격대의 세트가 큰 매출 신장을 기록, 전체 선물세트 매출 상승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만원 이상 가격대의 프리미엄 세트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명절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접 찾아 뵙지 못하는 대신 고가의 선물을 보내드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언택트 설날이 예상되어 귀성여비가 줄어든 만큼, 그 비용이 선물세트에 반영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은 작년 설 동기간 대비 79.8% 신장하며 프리미엄 세트의 강세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 역시 20만원 이상 세트가 212.8% 신장하며, 전체 선물세트 매출 신장을 이끌어 냈다.

이마트는 프리미엄 세트가 강세임을 사전에 인지, 올 설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늘렸다. 굴비세트 중 인기가 많은 명품골드 참굴비 1호(카드 할인 시 30만4000원)와 명품골드 영광 참굴비 2호(카드 할인 시 22만4000원) 물량을 약 20%가량 늘렸다. 피코크 횡성축협한우 1++갈비세트(카드 할인 시 30만4000원), 피코크 횡성축협한우1++ 구이 2호 세트(카드 할인 시 58만5000원) 등 3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축산세트 역시 준비량을 지난해 설보다 30%가량 늘렸다.

이마트와 SSG닷컴은 이번 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다. 2월 1일로 사전예약 판매를 종료하고, 2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본격적으로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GS25, 구독서비스 혜택 강화

김밥 등 상품 확대… 3900원으로 20% 할인

'더팝플러스 한끼+' 서비스
30일동안 15개 제품 할인

고객이 GS25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하며 더팝플러스 혜택을 받고 있다. /GS리테일

GS25가 구독경제 서비스 '더팝플러스'의 인기에 보답하고자 보다 강력해진 혜택을 제공하는 '더팝플러스 한끼+'를 선보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월 1일부터 혜택의 폭을 넓힌 '더팝플러스 한끼+'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더팝플러스 한끼+'는 지난 5월에 선보인 '더팝플러스 도시락&샐러드'가 도시락, 샐러드에 한정해 할인하던 혜택을 김밥, 햄버거, 브레디크 등 다양한 상품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GS25의 더팝플러스 이용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비스 출시 초기 20년 5월 대비 12월 가입자 수는 5.1배 증가했으며 미가입고객 대비 가입고객이 해당 카테고리 상품에 대한 구매 개수가 4배, 구입 금액은 3.8배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함께 구입하는 상품을 살펴봤을 때 식사용 상품의 구입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혜택을 보다 많이 제공하고자 이번 '더팝플러스 한끼+'를 선보이게 됐다.

기존 '더팝플러스 도시락&샐러드'는 업계 구독 경제의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하며, 도시락, 샐러드 구매 시 30일동안 10개까지 사용이 가능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더팝플러스한끼+'는 기존 카테고리에 주먹밥,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브레디크, 일반빵, 디저트빵, 요리, 반찬, 조리면, 치킨25, 즉석조리(군고구마, 즉석어묵 등)까지 편의점에서 식사 대용으로 구입이 가능한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단, 상품당 최대 가격은 판매가 기준 6000원까지) 또한, 혜택은 30일동안 15개(1일 최대 5개까지)로 확대하며, 이용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3990원으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0일동안 6000원 상품을 15개를 구입한다면 1만8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료를 빼고도 약 1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상품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구입 가능 개수도 증가됨에 따라 '더팝플러스 한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1850개 상품 '1+1·2+1' 행사

식사, 음료 등 식품류 할인 집중

이마트24가 2월 한달간 1850개 상품에 대해 1+1, 2+1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들의 알뜰 냉장고로 변신한다.

이는 지난 해 대비 42% 늘린 것으로, 이번 달에는 집콕족을 위한 식사류, 주류 및 안주, 간식, 음료 등 식품류 할인에 집중했다.

실제로 2월 행사 상품 중 식품이 85%를 차지한다. 1월 역대 최대 생필품 할인에 이어 2월에는 역대 최대 먹거리 할인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월간 행사와는 별도로 행사 카드로 구매 시 피코크 HMR 10종 4000원 균일가, 탄산/스포츠음료 전 상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마트24가 2월에 파격적인 식품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집콕 라이프가 지속되고,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먹거리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이마트24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월간 행사와는 별도로 이마트24는 2월 1일~7일까지 '냉장고를 털어라' 콘셉트로 HMR, 음료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주일 동안 이마트24는 감자탕, 마라탕, 한우고기곰탕, 잔슨빌소시지부대찌개 등 피코크 HMR 10종에 대해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4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감자탕이 9천원, 마라탕, 한우고기곰탕이 각 8천원으로 KB국민카드 결제 시 55%, 50% 할인 혜택을 누리며 구매할 수 있다.(기간 내 1일, 1인, 1회 최대 4100원 할인)

같은 기간 탄산/스포츠음료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도 진행한다.

고객들은 이마트24에서 현대카드로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와 스포츠음료(이온음료, 에너지음료 등)를 5000원 이상 구매 시 2500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간 내 1일 1인 1회 최대 2500원) 이마트24에서 탄산/스포츠음료 모든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원선 기자

"'후디스 산양유아식' 직접 체험해보세요"

일동후디스 1000명 체험단 이벤트

일동후디스가 '후디스 산양유아식' 1000명 체험단 이벤트를 오는 2월 1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일동후디스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양유아식 1000명 체험단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벤트 참여방법으로 먼저 일동후디스 공식 인스타그램 체험단 모집 게시물을 캡쳐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혹은 리그램한다.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본인의 일동후디스 홈페이지 아이디와 '공유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체험단으로 선정된 총 1000명에게는 일동후디스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기입된 주소로 '후디스 산양유아식'을 전달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오뚜기

오즈키친 칼국수 2종

오뚜기가 쫄깃한 면발과 풍부한 고명을 진한 육수에 담아낸 '오즈키친 칼국수'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제품 '오즈키친 닭칼국수'와 '오즈키친 육개장칼국수'는 오뚜기의 최초 조리형 파우치 냉동면 제품다. 조리형 콘셉트에 맞춰 후첨 조미를 고려한 깔끔한 맛으로 개발했으며, 소비자가 조리 후 취향대로 간장, 후추, 고춧가루 등을 첨가해 입맛에 맞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즈키친 닭칼국수'는 닭고기, 대파, 호박, 홍고추 등의 풍부한 고형물에 칼칼한 청양고추와 닭고기육수의 깊은 맛에 담아낸 제품으로, 진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특징인 제품이다. '오즈키친 육개장칼국수'는 쇠고기, 토란대, 대파 등 풍부한 고형물을 진한 사골육수의 얼큰한 맛에 담아낸 제품으로, 쫄깃한 면발이 얼큰한 육개장 국물과 잘 어울린다.

/조효정 기자